

주간기도정보

2025. 11. 1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재범률 절반 이하, 전 세계 조명받은 소망교도소”

소망교도소, 개청 15주년 기념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워진 소망교도소가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명성교회와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열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정 모델의 성과를 전 세계에 소개했다.

개회 예배에서 ‘간힌 중에서 낳은 아들(빌레몬서 1:8-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권순웅 목사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감옥에 수감 중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해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면서 “소망교도소의 사역도 ‘간힌 중 낳은 아들’을 길러내는 일로 하나님께 서는 가뭇을 통해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 더 많은 주의 종을 길러내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소망교도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삼환 목사는 “교정시설의 장벽은 너무 높았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협력과 하나님 은혜로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었다”며 “100년의 기도와 10년의 준비, 그리고 15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소망교도소를 통해 전 세계 교정시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텍사스 A&M 인터내셔널 대학교 형사사법학과 이승묵 교수는 “민영교도소는 전 세계 교정 제도에서 논쟁이 분분하다. 한국은 전체 수용자의 0.7%만이 민영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호주 23%, 영국 10%, 미국 8%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을 확인함으로써 교정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연구 결과 출소 후 3년 재범률 평균은 국영교도소 24.7%인 것에 반해 소망교도소는 11.5%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도출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망교도소 출소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해 국영교도소 출소자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했다. 총 117명이 응답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영교도소 출소자와 비교해 소망교도소 출소자들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만족도’와 ‘관계의 질’에서 소망교도소가 유의미한 긍정 응답을 얻었다.

이 결과에 대해 이승묵 교수는 “소망교도소 수용 경험은 ‘삶의 궤적’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소망교도소에서 경험한 신앙은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망교도소의 효용성을 조명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신교가 운영하는 유일한 교도소로 지금까지 560여 명의 수형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연 3회 이상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수형자들의 내적 회복과 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누가복음 7:47-48)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빌레몬서 1:9-10)

하나님, 굳게 닫힌 것만 같았던 교도소의 문을 한국교회에 열어주사 수형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소망 교도소를 세우시고 15년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을 논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한국교회가 주께서 부탁하신 교정사역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 교도소의 모든 형제들이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사 사랑의 수고와 기도로 생명을 낳으며 악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돈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리라”

“피 400ml에 쌀 3kg”...수확기에도 굶주리자 ‘생계형 매혈’ 급증

매혈로 생계 이어가는 주민 수 10배 늘어...반복적인 채혈에 몸져눅는 경우도 비일비재



최근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생계를 위해 혈액을 파는 ‘매혈’(賣血)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수확기에도 식량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주민들이 최후의 생계 수단으로 매혈에 뛰어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함흥시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부쩍 늘면서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하기 위해 피를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20-30명 중 1-2명이 매혈로 생계를 이어갔다면 최근에는 그 숫자가 10배로 늘었다. 소식통은 “본래 수확기인 가을은 주민들의 식량 형편이 다소 나아지는 시기지만, 올해는 수확기에 접어들어도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식량 위기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보통 한 번에 400ml의 피를 뽑는데, 그 대가로 식용유 2kg이나 쌀 3kg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인 가족이 고작 2-3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소식통은 “쌀 몇 킬로(kg)를 위해 피를 뽑는 현실이니 주민들의 생활이 어떤 수준인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매혈이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라는 점이다. 채혈은 일반 병원은 물론 혈액병원이나 감염병원 등에서도 이뤄지는데, 대부분 형식적인 문진만 거치거나 아무런 사전 검사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

소식통은 “건강한 사람이 채혈해야 회복이 빠를 텐데 대부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피를 뽑는다”며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혈은 6개월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2-3개월마다 반복하고 있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함흥시에 거주하는 한 40대 여성은 잦은 매혈의 후유증으로 몸져눅은 상태다. 그녀는 장사 수입이 줄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매혈’을 시작했다. 장마당에서 매대를 팔고 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버텼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 두 달에 한 번꼴로 피를 팔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러나 반복된 채혈로 몸이 점점 약해졌고, 심한 빈혈 증세를 보이다 결국 최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서는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가족들을 굶기지 않으려 갖은 수단과 방법을 쓴다”며 “이러한 생계형 매혈은 함흥시뿐만 아니라 양강도, 함경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요즘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누가복음 1:78-79)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브리서 4:15-16)

하나님,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이 수확기에도 나아지지 않아 자기 혈액까지 팔아 끼니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채혈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편을 돌봐주시고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참된 의를 구하며 찾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이 이 땅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위로부터 임하여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 자녀의 학교,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해”...전국 기독 학부모들의 기도

연세대 대강당서 열린 제3회 ‘거룩한 성회-학부모 연합 집회’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강당이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 550여 명의 기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예배는 전국기독교학부모연합회(대표 장유미)가 주최한 제3회 ‘2025 거룩한 성회-학부모 연합 집회’로 주제는 ‘새 시대 믿음의 지도를 완성하라’였다.

말씀을 전한 고성준 수원하나교회 목사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본문으로 ‘시대의 도전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살아난 자녀들을 통해 이 나라가 살아난다”며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에 설계를 가지신 분이요, 그 계획안에는 풍성한 복과 돌파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한국의 운명은 기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윗세대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곧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 세대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자녀 세대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인본주의, 진화론, 동성애·젠더 이슈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을 내리는 신앙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합심 기도’를 인도한 장유미 대표는 “먼저 부모 세대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령 가운데 새기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외쳤다. 또한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회복”이라며,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SNS에 개설한 ‘학부모연합기도방’을 통해 매일 기도문을 나누며 전국적으로 합심기도를 이어간다. 2년 전 4곳이던 대학 학부모 기도 모임이 현재 14곳으로 늘었고, 초·중·고·대를 합쳐 66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장 대표는 “부모의 기도가 단지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의 복음 생태계를 세워가는 영적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의초등학교 학부모 기도 모임에 참여 중인 한세연(37)씨도 이날 처음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4명으로 늘었다”며 “학부모 기도회는 매일 단체채팅방에서 기도문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모여 학교와 교사,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

용산고 1학년 아들을 둔 이선정(50)씨는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기도와 찬양이 너무 뜨거워 감동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부모들도 급변하는 세계관 속에서 많이 혼란스럽다”며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를 위해 무턱대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믿음의 방향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5-6)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데살로니가전서 2:11-12)

하나님, 전국의 기독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중보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막연히 복을 구했던 것에서 돌이켜 마지막 때에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우기로 결단한 부모들의 무릎을 진리로 더욱 견고케 하옵소서. 자기 자녀뿐 아니라 다음세대와 학교 안에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세대가 부모세대의 믿음의 기도와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서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꿈꾸며 선교완성을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